

청소년 학교 사역과 out - reach 전략

(School Ministry)

신도배 전도사

1. Power Wave의 vision과 전략

가르침의 핵심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과
- 중보기도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을 펼쳐나간다.

2. 최근의 청소년 사역의 흐름(같은 vision을 보는 우리들)

- 성남/분당 교회 연합 청소년 집회 : 분당 중앙공원 12000명의 청소년 참여
- (서울)강서지역 청소년 선교회 결성 : 노회의 주도와 10여 개의 주요교회 담임목사님의 협력, 선교사 파송
- (서울)cross모임의 결성
- YWAM의 see you at the pole 모임의 확장

이러한 사역의 공통점 : 학교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3. 최근의 청소년 문화의 흐름(청소년 사역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 인터넷문화 : 최근의 청소년 문화의 흐름은 computer의 발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computer는 기술이 아닌 문화이다.

(1) cyber공간의 확장(영화matrix)-현실공간 vs. 사이버공간

:법을 규범과 책임의식, 체면의 존재(사람의 감정과 의경의 억제장치) / 탈억제화 (다양한 목소리의 분출, 채팅, 포르노그래피, network게임, 인신 공격성 발언, 사이버 사기가 만연)

:통신중독증 - 통신 중독증은 통신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2) 가장 빠르고 많은 정보의 창고(filtering 과정의 무력화) - 클릭만 하면 원하는 곳으로, 정보 수용자의 선택능력을 최대화, 이동비용의 최소화, 정보분별력이 중요 / 미래 예언적 사역이 필요

(3) on-line공동체와 oft-line공동체 - 학교와 교회 vs.청소년 공동체

(4) 컴퓨터 게임의 영향력

“어른들이 예전부터 바둑이나 장기를 통해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게임을 통해 세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운다.” (Cyber youth에서 중2학생이)

- 학교 문화의 변화 (공교육 붕괴인가? 아니면 새로운 paradyme의 시작인가?)

(1) 최근 학교교육의 현주소

:최근의 교육정책-시장원리의 도입(자율화, 수요자 중심, 다양화, 특성화, 경쟁화)

- ① 수업의 붕괴-공부는 학원에서, 평가는 학교에서
- ② 생화지도의 붕괴-도덕적, 실제적 훈계수단의 무력화
- ③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상실-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

(2) 교육의 붕괴인가? 아니면 새 paradyme의 전개인가?

:최근 사회학자, 미래학자의 분석(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전환)

- ① 새로운 사회관계, 조직 형성-보수이고 분산적이며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특징이 되는 주체가 등장한다.(Ma가 Poster)
- ② 쌍방향 대화-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며 다원적 관계로, 교사와 학생간에 존재했던 역할구분이나 위계질서에 대한 경계 허물기가 이루어진다. (학생들간의 협동학습이 용이해 진다. - 학생 개개인이 학습의 주체와 중심으로)
- ③ High Tech, High Touch (미래학자 나이츠비츠)-이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교육에서 테크놀러지의 역할이 커질수록 인간 중심적 교육에 대한 인식도 커져야 한다.

▶ 교회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영역의 확장필요

:기다리는 사역, 수동적이며 소극적 사역, 유지하는 사역

⇒나아가는 사역, 능동적이며 적극적 사역, 도전하는 사역(cross the line)

:분명한 vision과 전략이 필요하다.

- ①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시간과 재정이 필요한 노력이다.
- ②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 학교와 학원(하루의 대부분)
- ③ 청소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 : 또래 그룹

4. 학교 사역의 실제적 적용 (전략)

1) 학생들에게 가장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도구는? 학생들이다.

*최근의 종교교육제도의 변화 - 선택과목, 종교 교사 자격증(점점 교회가 학교에 들어갈 길이 좁아지고 있다.)

2) Power Wave학교 사역을 위한 방향의 설정과 구체화 전략

(1) 학교 사역의 방향 : 중보기도 사역과 이를 통한 개인과 학교의 변화

(2) 구체적 전략 : 각 학교에서 소속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 위한 중보기도 목적의 소그룹을 만든다.

- ① 조직의 구성 :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하라. 부서 조직의 변화 (지역과 학교)
- ② 리더십 조직과 훈련 : 청소년 리더십 학교, 청소년 성령집회, 주기적 방문과 격려
- ③ 중보기도 모임의 훈련과 격려 : 부서 모임을 활용, 학교 중보기도 사역자의 연결, 주기적 방문과 격려
- ④ 중보기도 팀을 인도하기 위한 지침제시 : 중보기도의 정확한 의미/ 방법과 기술/

중보기도 모임을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 모임의 시작
- 중보기도 인도방법
- 모임 인도자 선정 및 인도자 지침
- 여러 상황에서의 모임 인도

(3) 학교 중보기도 모임을 돕는 교회의 부서 세움 : 정보공유/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모임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학부모, 교사, 졸업한 선배들 사역)

(4) 청소년 성령집회 : 지역학교 중보기도 모임 격려와 기도/ 정보공유/ 인터넷사역

5. Power Outreach 전략과 진행

1) Power Wave의 Outreach 기본 방향

- vision의 확장
-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신앙의 upgrade)
- 한국 교회와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

2) 구체적 전략(2000년을 중심으로)

(1) 지역과 사역의 내용 등을 전체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준비한다.

: 교역자 기도회를 통해서 큰 방향을 청소년 사역자 기도회를 통하여 구체적 지역과 내용을 준비한다.

▶ 큰 방향 : 한국의 아픔의 땅은 어디인가?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우리의 target은 청소년이다.

▶ 구체적 지역과 사역내용 : 광주 땅/ 청소년 성령집회와 현지 거점전도 및 봉사활동 등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점검

(2)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들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한다.

: 수 차례의 현지 정탐과 현지 교회 및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그 땅을 research하고 현지의 기도제목 등을 통해 현지 교회의 흐름과 청소년사역의 최근 동향 등을 파악

- 현지 research 자료 발간 (모든 교사 공유), 기도제목 정리 (전체 교사 기도모임을 통하여 Outreach target을 명료화 함

(3)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지의 영적 상황을 모든 사역자에게 분명히 드러냄 : 반복되는 전체 기도회, 말씀을 정리→기도의 초점 명확히 되어감, target이 분명히 드러남

- 교사 핸드북 발간

: 밀도 있는 준비와 진행 필요→학생들에게까지 분명한 초점을 공유할 수 있게

- 학생 핸드북 발간

-Q.T 신문발간

3) 2000 Power Outreach의 진행

(1) 기간, 장소, 주제

: 2000.7.31-8.3(3박4일)/ 광주광역시/ 주의 빛 비추소서(Shine, Jesus shine!)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 4:16)

(2) 주요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광주 땅위에 비추게 하소서
- ② 광주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 ③ 광주의 중, 고등학교에 중보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소서
- ④ 광주 교회 안에 예배, 찬양의 부흥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 ⑤ 광주에 주님의 빛으로 오신 23인의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 ⑥ Power Station과 부서별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 ⑦ 광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아픔의 역사가 단절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3) 사역의 내용

: 청소년 성령집회(power station), 청소년 사역 세미나

: 거리전도, 거점집회, 봉사활동, coffee house, 교회 협력사역(현지8개 교회 협력) 등

(4) 평가 : 교역자들과 주요 기획위원들과의 평가를 통해 감사의 제목과 미비점을 정리

- 내년 사역의 자료

* 한 선교사의 이야기(ch.10에서)

필자는 올해로 교직에 몸담은 지가 15년째이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부리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다가 오히려 지적한 내가 잘못이라고

대드는 통에 기가 막혀서 수업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무실로 내려와 버린 일이 바로 두 주전 일이다.

현재 교육현장에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관찰’과 ‘체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체험자의 입장에 서보아야만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체벌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당당하게 교육청이나 112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12에 신고하면 수 분 내로 경찰이

학교에 온다. 대단한 기동성의 경찰이다.
그런 사례를 구경하는 일은 이제 주변에서 흔하다.

학기 초 교사와 학생간의 탐색기가 경과하면
수업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0% 대에 불과하다.
실내에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면 벗지 않는다.
교복단추를 모조리 풀어헤치고 있어도 흥이 되지 않는다.
한 달만에 한번 부과하는 과제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생은 20% 미만이다.

남학생의 귀고리도 발견되며,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밤에만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과서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필자도 생각하지 않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 30%정도는 아예 교과서가 없거나 있어도 가져오지 않고
교사의 간섭이 귀찮은 학생은 배우고 있는 해당 단원만 잘라내서 몇 장 들고 온다.

개인학습 지도를 하려고 학생의 노트를 보다가
'왜 끼어 드세요?'라는 핀잔을 듣는 교사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수업에 집중하자'라는 말은
듣지 않는 아이들도 그 학교의 소위 '일진'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한마디 하면
교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교사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다.

지난 주 몇 분의 선생님들로부터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 역시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교사는 '교육행위를 통하여 2세를 길러내고
더불어 자기 성취도 이루는' 직업이 아니다.